

日本の 에너지政策이 軌道수정을 하고 있다

大韓石油協會 · 弘報室

日 本의 에너지정책이 최근의 에너지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源의 안정공급확보외에 에너지의 경제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日本 通産相의 자문기관인 綜合에너지調査會는 현행 에너지수급전망을 수정하고, 에너지정책을 총점점한 보고서를 정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에너지정책의 과제는 에너지 코스트의 절감(값싼 에너지源의 확보)으로 지금까지의 기본전략이었던 안정확보에 경제성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두 차례의 석유위기 이후 日本의 에너지정책은 과도한 석유의존도로부터의 탈피에 주안점을 두어 왔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은 공급의 안정 확보와 아울러 경제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重視의 관점에서 ① 태양열발전, 전기분해법에 의한 수소제조프로젝트는 개발을 보류하고,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火力發電所는 당분간 건설을 중지할 것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급의 안정확보의 관점에서 原子力, 石炭등의 代替에너지의 착실한 개발로 석유의존도의 감축 템포를 지금까지의 정책보다 늦추고 있다. 또 경제성을 무시한 脱石油-一辺倒의 에너지정책은 비현실적이며, 原油 도입의 中東의존도를 감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석유를 마치「미운 오리새끼」 취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그 저변에 짙게 깔려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제 1차 석유위기 이후 지나친 石油依存度로부터의 탈피를 기본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에너지정책은 상당히 명확한 형태로 各에너지源別로 재검토되고 있다. 즉 石油에 있어서는 ① 비축체제는탄

력적으로 운용하고, ② 자주개발은 자금조달방식, 기술 면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며, ③ 消費地精製主義도 국제화의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對策의 과제와 対応方向

▲ 基本方向=에너지대책의 목적은 수요에 맞춰 에너지의 量的·가격적인 안정공급의 확보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① 안정공급의 확보, ② 에너지 코스트의 低減, ③ 안정공급확보와 에너지 코스트등의 最適균형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적인 보완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市場메커니즘을 통해 民間活力을 최대한 끌어내 효율적으로 에너지수요구조를 변혁시킬 필요가 있다.

▲ 에너지 코스트의 低減=에너지 코스트는 수급구조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되며, 에너지소비절약이나 연료 전환, 또는 電源다양화등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인 보완이 불가결하므로 市場메커니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 各에너지源의 역할과 位置定立=日本の 전체에너지공급의 60%를 차지하는 石油은 앞으로도 固有의 수요분야를 가질 최대의 에너지源인바, 안정공급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탄력적인 石油依存度の 감축이 요구된다. 石油代替에너지는 안정공급의 확보와 경제성등의 균형의 어느 쪽에 공급구조의 실현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市場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 선택적인 개발과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에너지産業의 효율화 = 石油産業은 과잉설비의 처리를 확실히 실시하는 한편, 설비고도화, 기업간 제휴의 강화와 元壳의 집약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기사업은 효율적인 負荷형성, 계획적이면서 효율적인 설비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또 앞으로도 有望産業으로 기대되는 新에너지産業은 오는 2000년 이후에 그 잠재적인 시장규모가 연간 數兆円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또 다양한 기술과 일반산업에의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특히 경제성확보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産業群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最適에너지需給構造의 실현 = 앞으로의 에너지수급구조의 전망에 있어서는 정책효과를 고려한 안정공급의 확보와 경제성의 조화가 요구되는데 현실에 입각한 수요를 想定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동향도 고려하여 적절한 伸張을 전망하는 것이 타당한데 오는 95년의 에너지수요에 대해서는 2000년의 전망과 함께 묶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정공급 확보의 관점에서 석유의존도의 감축을 예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는 90년의 석유의존도는 50% 정도를 목표로 하여 현실적이면서 탄력적으로 그 감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데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95년에는 50%를 어느 정도 하회하는 석유의존도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 가는 것이 적당하다.

▲ 에너지分野의 資金확보 = 에너지분야의 자금은 계속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간 자금은 에너지 관련설비투자가 착실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 그 원활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정비의 방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재원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石油稅収의 전망과 일반회계의 재정사정에 유의하면서 세출의 重点化, 효율화를 전제로 하여 石油對策 등의 계획적인 추진, 자금의 官民분담방법, 에너지에 대한 課稅방법등 폭넓은 관점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綜合에너지對策의 重点的, 効率的 추진

▲ 수급구조의 변화를 감안한 石油의 안정공급의 확보

=설비의 고도화를 원활히 실시하는 한편 공동투자, 공동이용 및 생산단계에서의 企業間 제휴, 元壳단계에서의 집약화 등 경영기반의 강화가 불가결하다. 석유비축에 있어서는 계속 현행 비축목표(민간 90日分, 국가 3천만kl)의 달성과 유지가 요구된다. 또 국가비축에 있어서는 탱커비축의 陸揚의 촉진, 민간의 原油탱크의 잉여능력의 효율적인 이용, 국가비축기지의 완공시기의 연기 등 탄력적인 운용을 착실히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中長期的 經濟性を 重視한 石油代替에너지의 開發·導入의 추진 = 새로운 에너지 관련 의 各프로젝트는 경제성을 중시한 종합적 평가를 거쳐 重点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프로젝트로서는 石炭液化·가스화, 太陽光發電, 연료전지, 오일셀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보류할 프로젝트는 太陽熱發電, 전기분해법에 의한 水素의 두가지. 한편 石油代替에너지의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우선 LNG(液化天然가스)개발의 기본적 과제는 石油와 熱量等価로 경직적으로 슬라이드시키고 있는 가격결정방식의 재검토와 공급조건의 경직성(Take or Pay조항)의 완화이다. 또 석탄은 장기적 관점에서 有望프로젝트는 계속 추진하되 우리나라는 신규조달본의 절반을 목표로 개발수입의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供給源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供給코스트의 節減을 지향한 電源다양화등의 추진 = 各電源의 공급코스트에 있어서는 안전성확보를 전제로 原子力發電의 건설비를 10% 정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석탄화력 건설비의 절감, 화력발전의 長수명화, 광역개발의 추진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電源다양화에 의한 電力코스트의 절감에 대해서는 베이스供給力은 原子力, 石炭火力를 중심으로 하되 특히, 原子力에 있어서는 核燃料사이클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 미들供給力은 石炭火力, LNG火力中心으로 하되 LNG火力는 LNG거래조건의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개발의 추진은 부적당하다. *

너와나의 식량절약 이룩되는 식량자금